地理學論叢 제45호 (2005. 2)

국토연구를 위한 지지편찬의 기본 방향과 내용체계 구상*

안 영 진**

A Study on the Logics and Content System for a New Regional Geography of Korea

Ahn, Young-Jin

요약 : 이 글은 국가사회의 발전과정에서 우리 국토와 각 지역의 구조 · 기능적 변동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국토연구원이 기획하고 있는 가칭 '국토지지' 가 과연 어떤 문제의식과 방향을 갖고, 어떤 내용체계를 갖고 추진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했다. 이를 위한 학술적 기초 작업의 하나로서 시도된 본 연구는 지리학에서 논의되어온 지지연구의 의미와 동향을 간략히 검토한 뒤, 기존의 지지와 차별화할 수 있는 새로운 지지편찬의 방향과 내용체계를 논의하고자 했다. 결론적으로 국토연구를 위한 지지편찬은 기존 성과를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지양하되, 국토와 각 지역의 발전과정을 총체적으로 담아내는 동시에 그간의 국토개발 정책에 대한 평가와 미래 정책방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문제 지향적 주제를 발굴하고, 시대에 알맞는 형식과 서술 방식을 갖추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주요어 : 지리학, 지역지리학, 국토연구원, 연구방법론, 내용체계

Abstract : This paper aims to explain the goals and approaches, and content system of a new regional geography of Korea that is now being planed by the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KRIHS) in order to understand the structural and functional changes of national land and its regions. The study discussed the progresses and various critics in regional studies in geography and suggested a basic logics and content system of a new regional geography of Korea that will be differentiated from other regional geographies of Korea. A new regional geography should be based on the problem-oriented approach and focused on the comprehensive analysis of the structure and its dynamic changes of national land for a future spatial policies.

Key Words : geography, regional geography, KRIHS, research method, content system

---

* 본 연구는 2003년 12월 국토연구원 지지연구팀의 요청으로 필자가 작성하여 토론한 바 있는 미발표 졸고 "지지연구의 기본방향과 편찬체계" 의 일부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전적으로 필자의 개인적 견해임을 밝혀둔다.

** 전남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조교수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Chonnam National University), yjahn@chonnam.ac.kr

1. 들어가는 말

한국 근·현대사의 궤적을 뒤돌아보면, 그것은 개항과 더불어 시작된 외세의 침입과 뒤이은 국권의 상실과 일제의 식민통치, 그리고 오랜 고난과 투쟁을 통해 얻은 해방과 건국의 짧은 기쁨을 뒤로 하고 곧바로 맞이한 민족의 비극인 남북분단과 동족상잔 등 질곡과 고난으로 가득 찬 역사였다. 그러나 1950년대 말 이후 이러한 민족의 수난과 저발전이라는 역사적 유산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민족의 역량을 다시 결집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결코 버리지 않았던 국민들의 끈질긴 노력을 바탕으로 하여 근대화로 표현되는 시대적 도전에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면모를 일신한 모범적인 국민국가를 건설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역사는 우리 민족의 자긍심을 향유할 충분한 여유를 허용하지 않았다. 이미 반세기를 훌쩍 넘긴 분단의 상처와 남북한 간에 지속되어온 긴장과 반목에는 여전히 별다른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1980년대 중반 이후 민주화 과정에서 깊어진 정치사회적 갈등과 반목과 혼란은 쉽사리 치유되지 않고 있다. 특히 1990년대 말 외환위기는 지난 반세기의 발전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던졌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각 부문에 걸쳐 그늘과 소외의 골을 더욱 더 넓혀 놓았다. 더군다나 우리는 목하 세계화와 지방화, 지식정보화, 친환경화라는 21세기의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이미 맞고 있다.

이러한 20세기 민족의 고난과 국가건설, 근대화와 민주화라는 정치경제적 변동 과정에서 우리 민족의 삶의 터전인 국토 역시 세계사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커다란 변화를 경험하였다. 지난 한 세기 동안 우리 국토는 사회변동과 밀접한 관련을 맺으면서 과거 수백, 수천 년 동안의 누적된 변동보다 훨씬 더 심대한, 그래서 한층 더 격렬했던 변화를 겪었다. 그야말로 상전벽해(桑田碧海)의 공간적 변혁 속에서 국토의 구조와 체계, 그리고 그 존재양식에 있어서 근본적인 전환이 있었다. 그 동안 우리 국토는 한편으로 국가발전과 사회변동을 매개하고 든든히 뒷받침해 온 토대이자 기본 조건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 굴곡이 뚜렷했던 사회변동 과정에서 파생된 온갖 부작용과 역기능을 고스란히 품어왔다. 더군다나 우리 사회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국토는 그간의 발전과정에서 누적되어 온 갖가지 문제점들을 치유해야 하는 동시에, 문명사적 전환을 깊이 담지하고 있는 21세기의 도전을 해쳐 나가는데 필요한 새로운 동력을 결집해야 할 상황에 처해 있다. 오늘날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민족의 전도는 20세기 전반기만큼 암울한 것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꼭 낙관할 만한 것도 아니다. 국토를 둘러싼 여건의 변화가 분명 위협적으로 다가오고 있다.

국토는 좋든 싫든 간에 그 동안 우리 민족과 사회가 지향해온 발전의 결과이자 장차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가치 실현의 토대이며 그 현실적 여건이자 출발점이다. 국토는 두말할 나위도 없이 한 민족의 삶의 터전이다. 국토는 한 민족의 생활과 생업과 생락(生樂)이 펼쳐지는 장소이자 민족적 자아실현을 위한 공동체적 기반이다. 국토는 본래 주어진 바 소여(Gegebenheit)이자 자연적·생태 환경적 조건의 총체이지만, 거기에 몸담고 살아가는 국민들이 또한 국토가 부여하는 이러한 갖가지 조건에 창의적으로 적응하는 한편, 이를 이용하고 변형시키면서 새롭게 가꾸고 창조해 가는 것이기도 하다.

위기는 언제나 기회를 담지하고 있다. 다행히 세계적 개방화라는 초국경적 통합 경향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영역성(Territoralitaet)을 강조하는 사고

가 곳곳에서 등장하고 그 호소력을 얻어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화된 국가간 경쟁 속에서 국토의 잠재력과 대외적 이점을 활용하려는 노력도 한층 강화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한편에서 21세기의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세계 질서의 재편 흐름을 활용하여 공간과 생활환경에 관한 국제적 규범을 적극 수용하고, 국토의 위상과 품격을 높여 갈 수 있는 미래지향적 정책방안을 전략적으로 모색해야할 시점에 처해 있다. 그렇지만 또 한편에서는 유구한 민족사에서 그 어느 때보다 격변기였던 일제 강점 이후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국가발전에 수반한 국토의 구조적 변동과 그 과정에서 파생된 국토이용과 개발을 둘러싼 다양한 시행착오와 역기능들을 세심하게 성찰하고, 전향적인 국토 경영의 패러다임을 새롭게 정립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그리고 그 어떤 경우이든 그 출발점은 국토의 중요성을 재인식하는 것을 바탕으로 하여 우리 국토가 근 · 현대사의 흐름 속에서 겪어온 다채로운 변화와 이를 추동해 온 발전 메커니즘, 그리고 결과적으로 현 단계에서 우리 국토가 직면하고 있는 갖가지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변화 과정에 내포된 공간적 의미를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평가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새로운 국토 발전 및 경영관리의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수립하는데 시사점을 도출하는 노력일 것이다.

이 글은 일제 강점기 이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국가사회의 발전과정에서 우리 국토와 각 지역의 다양한 구조적, 기능적 변화들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구상하고 있는 국토연구원의 가칭 '국토지지' 연구가 어떤 방향과 목표 아래, 그리고 어떤 체계로 추진되어야 할 것인가를 개괄적으로 살펴보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두 가지 측면에서 먼저 지지연구의 의미와 연구 동향을 간략히 검토하고, 이어서 국토연구원의 위상에 부합하며 기존의 지지연구와 차별화할 수 있는 새로운 지지연구의 기본 방향과 내용체계를 논의해 보고자 한다.

2. 지리학적 지지연구 : 동향의 개관

1) 지지 연구의 흐름

인간의 생활공간에 대한 관심은 인류 역사만큼이나 오랜 것이었다. 이러한 관심은 일차적으로 의식주와 같은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기본 재료들을 획득하기 위한 노력의 산물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과 더불어 타인들의 거주 장소와 그 주변 환경, 나아가 '미지의 세계' (Terra Inkognito)에 대한 인간의 끊임없는 지적 호기심의 발로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지적 호기심의 충족에 그치지 않고 공간 자료나 정보 또는 지방 및 지역적 인식의 형태로 후대에 전해지면서 인간의 거주공간과 생활세계에 대한 정형화된 지식으로 축적되어 왔는데, 이들 지식의 많은 부분은 무엇보다도 지지(地誌)라는 양식으로 체계화되어 왔다.

이러한 지지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오랜 연원은 갖고 있다. 서양의 경우에는 이미 고대 그리스 및 로마 시대로부터 한 국가영역 안의 다양한 자연환경과 인문현상을 때로는 나열적이고 백과사전적이긴 하나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수많은 지지(서)들이 쓰여 졌는데, 이는 지방지(topography)나 지역지(chorography)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지지는 보통 특정 영역 안의 여러 지역과 일정 장소의 실상과 사정을 살펴보거나 이해하기 위한 목적에

서, 영역 내의 자연 환경적 조건과 생태(풍토), 인구 현상과 인간의 정주공간, 각종 자원과 산업 활동, 그리고 사회 · 문화적 생활방식 등에 대한 관찰과 견문, 각종 여행 보고, 그리고 (기초적) 통계자료 등을 활용하여 편찬되어 왔다. 이러한 전통은 중세와 근세를 거쳐 꾸준히 이어져 왔는데, 특히 지리상의 발견시대에 들어서면서 그 시각은 국내에 한정된 것이 아닌, 세계의 여타 지역으로 확장되기에 이르렀다. 특히 이러한 지지연구의 전통은 18세기 이후 근대 국민국가(nation-state)가 제도적으로 확립되면서 일종의 국가지(Staatenkunde)의 형태로 발전하였다. 한 국가의 각 지방뿐만 아니라 인접 국가에 대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 · 정리하고 나름의 원칙에 입각하여 편찬함으로써, 근대 국민국가의 통치행위에 기초 자료이자 각종 행정 및 정책적 의사결정에 지침서로서의 중대한 의미를 얻게 되었다(권용우 · 안영진, 2001).

동양에서도 서양과 비교하여 결코 손색없는 지지연구의 오랜 역사와 전통이 확립되어 왔다. 동양 역시 지지연구는 인간의 생활공간에 대한 깊은 관심사에 바탕을 둔 것이었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단순한 기행문(紀行文)이나 산천기(山川記)의 성격을 벗어나 특정 지역에 대한 총람(總攬)적 기록으로 정형화되어 왔다. 하지만 지지는 무엇보다도 군사적 정보 수집과 국가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 통치자에게 필요한 전체 영역과 이를 구성하는 각 지방에 대한 장소적 지식과 현황 이해라는 목적에 맞추어졌다. 특정 지방 또는 지역에 대해 자연환경, 주민생활과 풍속, 주요 산물과 경제활동, 지방의 역사와 인물, 지명 유래 등을 주요 항목으로 설정하고, 이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 구성하는 방식을 취했다.

우리나라에서도 과거 왕조시대를 거치면서 지지연구가 다양한 지리적 척도(전국지리지인 여지와 지방지인 읍지)와 편찬 주체(국가 차원의 관찬지리서와 개인 차원의 사찬지리서)에 따라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양보경, 2000).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역사서로 평가받고 있는 『삼국사기』(三國史記 1145)에는 '지리지'(地理誌)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비록 지명의 나열과 지역의 연혁에 대한 설명에 그치고 있지만, 오늘날 삼국시대의 각 지방의 실태를 간접적으로나마 유추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임에 틀림없다. 지지가 본격적으로 편찬된 조선시대 전기에는 그 이전까지의 역사서의 부록 자료라는 성격을 떨쳐버리고 독립된, 독자적 저술로서 출간되기 시작했다. 주지하다시피 이는 중앙집권 체제의 강화와 함께 국가영역 내 각 지역의 사정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서, 통치 행위의 기초 지식을 제공하는 역할을 했다. 예를 들어 『경상도지리지』(1425)나 『세종실록지리지』(1454) 등과 같은 지지서가 활발히 편찬되었을 뿐만 아니라, 조선시대 관찬지리서인 『동국여지승람』(1481)은 15세기 우리나라 각 지방의 자연환경과 군사, 정치, 경제, 주민 생활상, 인물, 시문 등을 종합적으로 수록한 백과사전적 체계를 갖춘 지지의 결정판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후자는 오늘날까지 우리나라 각 지역의 역사와 주요 산물, 교통여건, 지역구조 등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저술로, 문화 · 역사지리학 분야는 물론이고 지방사나 사회사 등과 같은 많은 연구 분야에서도 귀중한 연구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이어 조선 중 · 후기에는 지방 차원에서도 지지의 편찬 사업이 폭넓게 전개되었는데, 각종 읍지(邑誌)는 초기에 주로 중앙정부의 전국적 지지를 편찬하는데 필요로 하는 자료들을 수집할 목적에서 편찬되었으나, 나중에는 개인 차원에서도 활발히 발간되었다.

현대에 들어와서 이러한 지지연구의 전통은 각급 지방자치단체들을 중심으로 도지(道誌)와 시지(市誌), 군지(郡誌), 읍 · 면의 향토지(鄕土誌), 심지어 마을지의 편찬 등으로 굳건히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도 지지편찬 사업은 시간의 간격을 두고서 수행되고 있다. 특히 1980년대 초반 건설부 국립지리원(현 국토지리정보원)이 발주하고 대한지리학회가 주관하여 전체 5권의 『한국지지』가 발간되었다. 그리고 국토지리정보원은 2003년부터 1980년대의 『한국지지』의 후속 작업이자 현재 매 5년 단위로 시행하고 있는 1 : 50,000 지도의 수정 및 갱신 작업과 연계하여 새로운 체제의 『한국지리지』편찬을 단계별로 추진 중에 있다.[1]

그리고 또한 해방 이후 국가의 행정기구가 정비되고 각급 산하 단체(공사나 출연기관) 및 연구기관 등이 차례로 설립되어 왔는데, 물론 자세한 발간 내역과 현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조사된 바가 없지만, 최근 들어 이들 기관들은 관련 업무의 연원과 조직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대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다양한 유형의 부문별 역사서 및 지지서를 출간하고 있는 실정이다.

2) 지리학적 지지연구의 동향

지리학은 예나 지금이나 인간의 생활공간(Lebensraum)에 관한 논리적인 분석 및 체계적인 설명과 이해를 추구하고 있다. 지리학은 지구를 구성하는 지표면의 자연환경과 함께 인간이 자연환경의 영향 하에서 때로는 이에 적응하고 때로는 이를 극복하면서 정치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활동 등을 전개하며 이룩해 온 삶의 터전이 보여주는 다채로운 면모와 구조, 질서, 그리고 그 변동 양상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전통적으로 지리학은 이러한 생활공간을 크게 두 가지의 방법론을 통해 접근해 왔는데, 이는 연구 목적의 강조점을 어디에 두느냐 와도 깊은 연관되어 있다. 그 하나가 특정 주제(지리요소)에 입각하여 한 지역 또는 여러 지역들을 포괄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으로서, 이는 계통적 접근 또는 주제적 접근이라고 하며, 곧 계통지리학(systematic 또는 general geography)을 일컫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한 지역에 초점을 맞추고 갖가지 주제들을 통합적으로 연계시켜 분석하는 방법으로서, 이는 지지적 접근이라고 하며, 곧 지역지리학(regional 또는 special geography)을 지칭하는 것이다(손명철, 2002; 안영진, 2003). 특정 지역과 무관하게 보편적으로 발견되는 공간 현상의 일반 원리나 법칙을 추구하는 것이 전자의 목적이라면, 후자는 자연 및 인문적 요인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상호 작용하는 가운데서 생성되는 특정 지역의 고유한 성격을 규명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2]

서구의 경우 지리학의 근원이 고대 그리스 시대에까지 소급될 수 있으나, 17세기에 들어와서 비로소 근대적 의미의 학문적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

1) 2003년 충청권(충청남 · 북도, 대전광역시)을 시작으로 하여 2004년 호남권(전라남 · 북도, 광주광역시, 제주도), 2005년 경상권(경상남 · 북도,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2006년 강원권(강원도), 마지막 2007년에는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과 전국의 총론편을 발간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2) 계통지리학의 경우 그 연구대상이 자연현상인가, 아니면 인문현상인가에 따라 자연지리학(physical geography)과 인문지리학(human geography)으로 다시 세분화되며, 지형학, 기후학, 토양지리학, 수문학, 생물지리학, 환경지리학 등이 자연지리학의 하위 영역들이라면, 경제지리학, 도시 · 촌락지리학, 정치지리학, 사회지리학, 문화 · 역사지리학, 인구지리학, 교통지리학, 관광지리학 등은 인문지리학의 하위 영역에 속한다.

이후 19세기 중반부터 독일을 선두 주자로 하여 대학이라는 지식 공동체 속에 독자적 학문 분과로서 공식적으로 자리 잡으면서, 지리학은 나름의 학리나 철학, 패러다임(사조), 그리고 접근 방법론을 확립하기 시작했다. 특히 19세기 후반 지리학은 당시의 지배적 방법론으로 인식된 자연과학적 접근방법(특히 다윈의 진화론)을 수용하여 인간과 자연환경 간의 관계를 주된 연구 대상으로 삼는 이른바 '환경론'을 시대의 핵심 패러다임으로 발전시켰다. 하지만 뒤이은 20세기를 들어서면서 이러한 인간 사회 및 문화와 자연환경 간의 상호작용을 '지역'이라는 형식 개념을 통하여 통합적으로 설명하는 '지역론', 다시 말해 지역지리학적 접근 방법론을 공고히 정립하였다. 인간의 거주공간인 지역을 중심으로 자연조건과 인문현상을 종합적으로 연관시켜 기술하고 이를 통해 지역적 동질성과 아울러 지역차(regional differentiation)를 규명함으로써, 특정 지역의 고유한 성격을 밝히려는 '지지연구'가 한 시대를 풍미한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이러한 지역지리학적 접근방법에 대한 다양한 비판이 제기되면서, 지리학의 성격도 지역에 관한 종합적 연구에서 지표상의 다양한 사물과 현상에 관한 계통적 연구로 크게 바뀌게 되었다. 이 뿐만 아니라 인접 학문의 앞선 과학이론과 실증적 연구 방법론을 받아들이고, 당시 급속히 발달하기 시작한 컴퓨터 등을 활용한 통계적 자료처리 기법들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지리학은 '공간분석적 접근'(spatial approach)을 강화시켜 나갔다. 즉, 현지조사를 통해 지역을 이해하기보다는 다양한 공간현상을 계량화하고, 이를 중심으로 법칙을 구성하고 이론적 설명을 시도하는 논리실증주의 내지 비판합리론이 지리학 연구의 방법론적 주류를 형성하게 되었다.

그러나 지역지리학('지지')을 중심으로 한 제2차 세계대전 이전의 '전통지리학'과 근본적으로 다른 이러한 '신지리학'도 1960년대를 거치고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갖가지 한계를 드러내고 지양의 대상이 되기 이르렀다(Stewig, 1979). 특히 지리학의 연구 대상인 지역이나 공간 또는 장소의 구성과 조직에 있어 인간의 주체적 역할과 의도를 강조하는 '인간주의 지리학'과 지역 이해에 있어 사회(자본주의) 체제의 구조적 영향과 그 발생과 전개 맥락에 초점을 맞춘 '구조주의 지리학'으로부터 호된 비판을 받았다. 이러한 과정에서 1980년대 이래 지역지리학에 대한 관심이 다시금 고조되면서 지지의 회귀와 재흥운동이 전개되기 시작했다(유우익, 1986; 서태열, 1989; Gilbert, 1988; Pudup, 1988). 1990년대에 들어서서는 신지역지리학(new regional geography)이라는 틀 속에서 새로운 지역연구의 과제와 접근방법, 분석 논리에 대한 토론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Johnston et al., 1990; Holmen, 1995; Wood, 1996; Werlen, 1997; 김기혁, 2000; 최병두, 2002).

3) 소결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지지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그 초점이 달라지고 내용적 범위도 크게 확대되어 왔지만, 기본적으로 한 국가의 전체 영역 또는 특정 지역에 대한 다양한 공간 정보와 자료를 수집, 정리하고 기술함으로써 국가 영역의 실태를 총체적으로 살펴보고 각 지역의 사정을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파악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Claval, 1998). 따라서 지지연구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국가나 지방정부의 통치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실용적 성격을 대단히 굳건히 견지해 왔

다. 지지는 또한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삶의 터전에 대한 인간의 깊은 관심과 애정 — 특히 우리의 옛 지지를 통해 우리 선조들의 국토 사랑의 깊은 정신을 찾아 볼 수 있음 — 을 나타내어 줄뿐만 아니라, 시대에 따라 서로 다른 지리적 세계관 내지 독특한 공간인식을 잘 반영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지지연구의 전통은 오늘날까지 굳건히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인간의 생활공간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논리적 설명 및 이해를 추구해 온 지리학은 오랜 역사를 통해 이러한 지지적 접근방법을 꾸준히 발전시켜 왔다(박영한, 1987). 근대 지리학이 성립된 이후 지지, 즉 지역지리학은 한때 지리학의 핵심적 패러다임이자 자연환경과 인간생활이 교호적 작용 속에 형성되어 온 지역의 성격과 구조에 대한 종합적 이해라는 맥락에서 지리학 연구의 최종 목표로 인식되기도 했다.

그렇지만 전통적 방식의 지지연구가 오늘날의 변화된 시대적 상황 하에서 얼마만한 적합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원론적으로 국가의 전체 영역이나 특정 지역과 장소에 대한 포괄적인 기술과 이를 바탕으로 하여 각종 (넓은 의미의) 정치행위에 기초 지식을 제공하는 지지연구의 의의와 그 실용적 특장은 과거는 물론이고 현재, 그리고 미래에도 유효하고 유효할 것으로 평가된다. 사실 과거는 두말할 나위도 없이 오늘날에도 국가사회나 개인의 다양한 척도의 단위 공간이나 장소에 관한 정보 수요는 여전하며, 장차 세계화와 지방화의 시대적 흐름이 심화되면 될수록 그 수요는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더군다나 공간 정보와 지역적 지식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면 나올수록 이를 체계적으로 취사선택하고 재구성하며 의미를 부여하는 작업은 그 만큼 더 긴요해질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지지가 인간의 생활공간에 관한 정보를 창출하고 조직하고 종합하는데 대단한 효율적인 방법론이라는 사실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으며, 또한 현 단계의 시대적 흐름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러한 성격을 앞으로도 계속하여 강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물론 지지연구가 이제까지 주된 흐름을 형성해 온 국가나 지방정부 차원의 실용적 목적을 뒷받침하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사회비판적' 공간연구나 지역 주민들의 실천적 삶에 관한 이른바 '해석학'으로서의 그 지평을 확대시켜 나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Wolf, 1994; Pohl, 1996; 森川 洋, 1997; 1998).

다른 한편으로 이와 더불어 보다 깊은 성찰이 요구되는 것은 지지연구의 내적 체계와 논리성, 즉 정합성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과거 역사시대의 전통적인 여지나 읍지, 나아가 그 연장선상에서 있는 오늘날의 도지와 시 · 군지 등은 내용체계와 항목구성, 그리고 서술방식 등과 관련하여 현대적 감각에 그다지 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전개방식도 시대적 요구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Blotevogel, 1997; 안영진, 2002). 오늘날의 많은 지지들이 여전히 고답적인 틀에 정태적인 백과사전적 체계와 개성 기술적 접근방식으로부터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따라서 과거의 그것을 발전적으로 지양한 진일보한 편집 양식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러한 비판적 인식의 논거는 앞에서 이미 시사하였듯이, 지리학의 역사적 전개과정에서 지역지리학의 위상과 그 성쇠과정을 통해 어렵지 않게 유추할 수 있다. 즉, 19세기 말~20세기 초반에 걸친 발생과 절정, 1950~70년대의 위기, 그리고 1980년

대 이래의 재흥이라는 지역지리학의 발전 도정은 다음 아닌 지지연구의 의의와 접근 방법론과 관련한 가능성과 한계에 대한 평가와 변화해온 시대상황의 상이한 문제제기의 맥락 속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3. 국토연구를 지지편찬의 기본 방향과 내용 구상

1) 기본 방향

지지연구는 국토와 각 지역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부문의 발전과 변화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국토와 지역이 이러한 부문 체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데 커다란 도움을 준다. 오늘날 지지연구는 과거 지리학적 지지연구에 대한 비판에서 이미 다양하게 제기되었듯이, 한 국가의 전체 영역과 특정 지역에 관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임의적으로 나열하고 기술하는데 그쳐서는 안 될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이러한 인간의 삶의 터전인 공간이 어떻게 변화해 왔고 어떻게 변하고 있으며, 그리고 장차 어떻게 변화해 나갈 것인가를 일목요연하고 종합적으로 이해시켜 줄 수 있는 설명의 틀(즉, 형식논리)을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이에 부합하는 각종 공간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여 논리적으로 재조직함으로써, 한 국가의 전체 영역이나 특정 지역의 발생과 변화, 기능과 입지, 구조와 질서 등을 규명하는 연구 작업인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지지연구는 각종 문헌 사료와 통계 자료, 그리고 기초적이고 이론적인 학술연구 등을 바탕으로 하지만, 이를 유기적으로 구성하고 설명함으로써 국토와 각 지역의 구조와 실상, 발전 동태 등을 이해하고 국가사회의 변동과정에서 파생된 여러 공간적 주제와 문제점들을 총체적으로 진단하고 검토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지연구는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되 그 한계를 성찰하고 과감히 지양하고 변화된 시대상황에 알 맞는 새로운 목적과 방향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여기서 국토연구원에서 구상하는 지지연구의 바람직한 방향 자체뿐만 아니라, 이의 설정과 관련하여 학술적으로 숙고해보아야 할 몇 가지 중요한 논점들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지지의 편찬과 발간을 둘러싼 개념적 얼개 내지 지향을 분명히 제시하는 것은 정책개발 중심(?)의 정부 출연기관인 국토연구원이 기초 연구의 성격이 강한 지지연구를 추진한다는 점에서 더 더욱 긴요하리라고 판단된다.

첫 번째 논점은, 다름 아닌 지지연구가 과연 필요(불가결)하고 얼마나 합목적적인지이다. 주지하다시피 근래에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는 지지연구가 지닌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활성화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도화되지도 못했다. 예를 들어 우리 역사에 대한 편찬사업(국사편찬위원회)과 각종 통계자료의 수집활동(통계청) 등은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반면, 국가발전의 현실적 조건이자 토대가 되는 국토와 각 지역이 어떤 다채로운 면모를 보여주고 있으며, 어떤 변동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어떤 문제점을 안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이미 모두에서 지적하였듯이, 한반도는 기실 지난 일제 강점기의 식민 통치에 의한 각종 자원의 수탈과 국토의 기형적 발전과 왜곡, 뒤이어 해방과 전쟁을 통한 혼란, 그리고 1960년대에 본격화된 근대화 과정을 거쳐 오늘의 민주화, 그리고 작금에

논의되고 있는 선진화에 이르기까지, 비록 우리의 반만년 역사에 비추어 볼 때 대단히 짧은 시간이었지만 과거 수백, 수천 년 동안의 누적된 변동보다 훨씬 더 격심한 공간 변동을 겪었다. 한반도에 본격적인 정주생활이 이루어진 후 오랜 역사를 거치면서 존재기본기능(Daseinsgrundfunktion)의 전개를 뒷받침하는 생활공간의 기본 질서와 구조가 형성되고 한민족의 문화와 생활양식이 국토 곳곳에 확장, 누적되어 왔지만, 그 변화의 속도와 층위는 대단히 느렸고 미약했다. 그런데 개항이후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식민지배의 목적 하에서 우리 국토의 모습은 그 이전과 질적으로 다른 근본적인 재편을 겪게 되었다. 그리고 해방과 6.25전쟁을 거치면서 사회적 혼란기 동안 극심한 인구이동으로 우리 국토에 대한 좋든 싫든 새로운 공간 의식과 인식이 국민들의 의식 속에 깊이 자리 잡고, 빈약하나마 각종 사회간접자본(SOC) 등이 파괴됨으로써 국토의 황폐화도 극에 달하게 되었다. 뒤이은 이른바 '국가자본주의' (state-capitalism) 내지 '발전자본주의' (developmental capitalism)를 전면에 내세우며 시작된 중앙집권적 관료화, 산업화, 도시화 등의 근대화 과정을 통해 우리 국토와 지역은 다시 한번 개벽적 변동을 거치게 되었다. 더군다나 우리는 지금 이러한 20세기의 역사를 뒤로하고 이미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다. 어쩌면 과거 한 세기 동안의 변화보다 더 큰 변화가 우리 앞에 예비되어 있을 런지도 모르겠다. 지식정보화와 세계화는 문명사적 전환의 큰 흐름이자 우리 민족에게는 새로운 도전임에 분명하다. 우리가 이러한 도전을 피할 수 없다면,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민족의 역량을 다시 결집하여 또 한번 도약하기 위한 노력에 경주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도 우리는 지난 한 세기 동안의 국토의 변화상과 그 이용문화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그 동안에 누적되어온 다양한 국토와 지역문제를 현명하게 치유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과 함께 미래 국가발전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국토의 잠재력을 종합적으로 탐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3] 따라서 이제까지 시도되지 않았던, 시도되었다고 하더라도 부차적으로 다루어졌고, 무엇보다도 현재의 우리의 삶을 조건짓고 가까운 미래의 우리의 삶도 조건지을 수 있다는 점에서 격동의 근·현대사 속에서 국가발전과 사회변동에 따라 우리 국토와 각 지역이 겪은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이를 분석하고 설명하는 동시에, 그에 따른 국토와 지역이 안고 있는 제반 공간적, 장소적 문제점을 진단하고 성찰하는 작업은 대단히 긴요하며, 이에 커다란 학술적, 정책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지지연구는 또한 일제 강점이후 우리 사회의 변화과정을 공간적 시각에서 복원하는 것이자, 우리의 삶의 터전인 국토를 둘러싼 개발방식과 이용문화, 나아가 우리의 국토인식과 철학을 조명하는 의미 있는 노력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 논점은 빈약하나마 편찬되고 있는 기존 지지에 고려할 때, (국토연구원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새로운 지지연구가 이들 기존 지지와 어떤 차별성을 가질 것이며, 따라서 어떤 개념적 틀과 내용적 성격을 바탕으로 할 것인지 하는 점이다.

전통적으로 지지연구는 국가 영역 또는 특정 지

3) 이런 맥락의 연장선상에서 볼 때, 지지연구는 국가차원의 제도적인 뒷받침 아래 수행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국토와 각 지역의 상황과 실태를 다양한 항목에 의거하여 폭넓고 자세히 조사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편찬하는 작업에는 많은 인력과 시간과 비용, 그리고 세심한 노력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역의 성격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부문의 구조와 프로세스, 그리고 그 규정 원인과 연관하여 횡단적(橫斷的)으로 분석하고 종합적으로 파악하는데 충실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 각종 공간 정보와 자료, 현지 조사의 결과와 지역적 지식, 관련 학술적 연구 성과들을 일정한 형식과 내용 체계에 입각하여 일관성 있게 조직하고 유기적으로 집약시키고, 최종적으로 이에 대한 해석과 평가를 내리고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을 취해 왔다. 그러나 전통적인 지지에 대한 비판에서 알 수 있듯이, 이러한 구조 연구는 단조롭고 무미건조하고 정태적이며, 과거에 대한 설명에 치중하고, 종합적이기보다는 나열적이고 백과사전적이며, 지역의 고유성과 특이성(個性記述的, idiographisch)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일반화(法則追求的, nomologisch)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을 무수히 받아 왔다.

본 지지연구도 이러한 일반 지지연구의 성격, 즉 구조 연구를 기반으로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지만, 이상과 같은 기존의 비판적 목소리를 감안하여 그 성격 내지 개념적 틀, 나아가 내용적 초점을 수정하거나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는 기존 지지와 차별성 - 특히 위에서 논의한 새로운 지지연구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노력은 주요 과제범위는 물론이고 이러한 구상 내지 내용적 초점의 변화에서도 자연스럽게 도출하여야 할 것임 - 과 주관 기관인 국토연구원의 정체성 내지 대외적 이미지와도 연관된 중요한 문제로 볼 수 있다. 현재 생각할 수 있는, 그 새로운 방향의 하나는 본 지지연구가 기초 및 이론 연구의 성격이 강한 구조 분석에서 출발하여 우리 국토와 지역의 모양새와 짜임, 그리고 그 품격에 대한 기본 지식과 이해를 제공하되, 한 걸음 더 나아가 동태적이고 문제 지향적이며, 응용(및 실천)지향적이며, 궁극적으로 정책 지향적인 분석을 한층 강화해 나가자는 것이다.

본 지지연구는 과거의 유산에만 얽매이거나 현실 상황에 안주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지지는 일차적으로 국토와 각 지방의 과거와 현재를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쓰여 져야 하지만, 어제와 오늘을 바탕으로 하여 내일의 국토와 지역의 모습을 조망할 수 있는 미래 지향적 맥락을 담아 내지 않을 수 없다. 지지연구가 정태적 공간 인식에 머무를 경우 무미건조해지고, 현상유지적 성격을 지닐 수밖에 없다.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지지는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장차 국가비전과 이를 뒷받침하는 국토와 각 지역의 발전방향을 전향적으로 탐색하는 적극적인 의미, 즉 구성적 성격도 견지해야 한다는 것이다.[4]

우리는 그 동안 전통적인 지지연구가 상아탑의 학문으로 전락하여 사회적 적실성을 상실하였다는 비판, 다시 말해 실천적 사회문제에 대한 발언을 애써(?) 외면해 왔다는 지적에 대해 경청할 필요가 있다. 지지연구는 과거와 현재의 연구에 머무는 것이 아닌, 국토와 각 지역에 관한 기초지식과 그 이용 및 개발 등 각종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성격을 갖도록 해야 한다. 우리 민족

4) 실천적 의미의 지지연구는 국토와 지역의 재구성적(再構成的, rekonstruktiv)-이론적(理論的, theorestisch) 설명에 머물지 않는다. 즉 지역적 지식과 공간 정보 또는 자료들을 논리적으로 정리하고 종합적으로 해설하는 학술적 작업에 그치지 않고, 응용적 특질의 구성적(構成的, konstruktiv)-응용적(應用的, angewandt) 성격을 동시에 지녀야 한다는 것이다. 지지연구에 국가경영과 국토발전을 위한 새로운 논리를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정책개발의 노력이 결합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각종 국토정책과 지역개발 등 정치적 의사결정에 참고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미래의 올바른 국토경영과 지역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거나 적어도 이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등 응용적 성격을 함께 지녀야 한다는 것이다.

의 삶의 터전이자 국가발전의 조건이 되는 전체 국토와 각 지역의 구조적 특성과 변동과정, 미래의 발전방향까지 총체적으로 심도 깊게 밝히고 통찰할 수 있는 지침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5)]

결국 이런 맥락에서 국토와 지역의 성격과 구조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와 아울러 응용적 · 정책적 성격을 강화한 새로운 지지연구에 대해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지지연구는 국토와 각 지역이 지닌 구조적 성격과 질서, 그 역사 · 발생적 배경과 동태적 발달 과정, 그리고 그 와중에서 야기된 각종 공간적 · 환경적 · 사회경제적 문제들을 분석하는 동시에, 미래의 국가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국토 및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탐색하고 궁극적으로 국토의 경영과 지역개발 등 국토관련 정책을 수립과 관련하여 올바른 발전 방향과 미래상을 구상하는데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을 최대한 강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세 번째 논점은, 지지연구가 지향하는 '목표집단' (Zielgruppe)이 과연 누구인가 하는 점이다. 이것은 지지연구의 방향은 물론이고 구체적으로 지지의 내용구성과 수준 등과도 밀접히 연계되어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6)] 여기서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목표집단으로서는 우선 우리 국토와 지역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국민들을 거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지연구가 예전부터 교육적 의의를 강조해 왔다는 점, 다시 말해 향토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국토 이해 및 국토관의 정립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각급 학교의 학생들과 교사들도 목표집단으로서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목표집단은 정치적 의사결정자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중앙정부의 정책 담당자들과 각 지자체의 시장과 의회 의원들과 공무원, 그리고 공공 및 민간 연구기관과 단체, 정당, 대학 등이 그 주된 수요자들이 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지지연구의 기본 방향의 설정과 관련하여 반드시 고려해야할 핵심적인 논점들 이외에도, 다소 부차적이긴 하지만 이왕에 새로운 지지연구를 구상하고 추진한다는 점에서 한, 두 가지 더 고려해야 할 사안이 있을 수 있다. 그 하나는 편찬 체제와 논술 방식 등에 있어 기존의 지지와 어떻게 차별화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미 지적하였듯이, 현재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과거 읍지의 전통을 이어받아 다양한 형태로 지지를 편찬 · 발간하고 있다. 이에 많은 인력이 동원되고 막대한 비용이 투자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지지 편찬의 목적이나 의도, 내용 구성과 편찬 체제, 서술 방식 등에서는 천편일률적이고 시대에 뒤떨어진 측면이 대단히 많다. 따라서 그 효용성에 대해서는 적잖은 비판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의미에서도 일반적인 지지연구와 관련하여 국토와 지역에 대한 발전적 문제의식을 담아내고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체제를 담보할 수 있는 획기적인 변화가 요청된다고 할 수

5) 특히 이점과 관련하여 지지를 통해 국가정책 입안 및 추진에 필요한 국토 및 각 지역에 대한 기초 정보를 얻고, 그 현황 파악을 손쉽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전체 국토와 각 지역의 구조적 특성과 변화 과정, 문제점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는 동시에, 국토와 지역과 관련된 중앙 및 지방 정부와 각 연구기관의 정책 수립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6) 이는 누가 어떤 인식의 틀을 갖고서 무엇을 누구에게 보여주는가 하는 문제와 관련이 있다. 특히 어떤 문제를 누구(수신자)를 위해 답변하려는가 하는 점은 지지 편찬과 관련하여 대단히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중대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있다. 본 지지연구는 국가나 지방 차원을 모두 포함하여 각종 지지의 발간 및 편찬에 가능한 새로운 표준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시대 상황에 적합한 참신한 감각과 체계적인 내용 구성, 유기적인 논리 전개 등을 적극 고려하고, 이와 관련한 새로운 접근 방법론을 찾아내는 선행 작업이 다각적으로 이루어져할 것이다.

또 하나는 지지연구가 국토연구원의 기능과 역할을 성찰하고 다시금 확인하는 계기로 적극 활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사람에 따라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고 상이한 가치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이지만, 국토연구원이 지난 1980년대 초반에 설립된 이래 기관의 특성상 각종 공간정책을 개발하는데 매진해 온 점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정책개발에 토대가 되는 국토공간에 대한 기초연구와 이론적 탐색은 많은 경우 뒷전으로 밀려났고, 그러다 보니 우리 실정에 맞는 독자적인 개발정책의 발굴에 있어서도 이제 한계에 부딪치고 있지 않는지를 겸허히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재구성적 이론연구와 구성적 정책개발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이제 국토연구원도 우리 국토의 과거와 현재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미래의 방향을 모색하는 노력이 절실하다. 이런 점에서도 지지연구는 그 훌륭한 출발점이 되겠는데, 기초 연구를 바탕으로 우리 국토를 균형 잡힌 시각에서 접근하고 이를 국토의 개발과 경영 관리에 관한 내실있는 정책 개발로 연결시킴으로써, 명실상부한 국토연구의 중추기관으로서의 대외적 위상과 이미지를 제고시켜 나가자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새로운 지지는 기본적으로 우리 국토와 각 지역의 과거, 현재, 미래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그려내는 지지 본래의 목적에 충실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와 동시에 이론적 논거를 바탕으로 응용적, 정책적 요구까지 적극 수용한 것이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지연구가 기존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개인 차원의 지지 및 향토지(도지, 시 · 군지 포함)와 차별성을 분명히 확보하고, 아울러 국토연구원의 성격과 위상을 최대한 반영하는 새로운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게다가 지지연구의 최종 수요자, 즉 성과물의 수신자를 생각하고 이들의 눈높이에 맞추는 전략적인 접근도 긴요하다고 할 것이다.

2) 지지편찬 범위

지지는 기존의 연구 성과와 각종 통계조사, 지역적 정보 및 자료 등을 부문별로 단순히 정리, 편집한다고 완성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지지는 국토 및 각 지역의 상황과 실태에 관한 광범위한 정보와 자료들을 조사하고 이를 정리하는 데서 출발하지만, 이들의 편집이 곧 지지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과거 각 지역의 인구나 경제활동 등을 통계적으로 조사, 편집한 지지가 적지 않았다. 한 국가의 전체로서 국토와 그 구성 요소인 각 지역의 실상을 개별 항목에 의거한 백과사전적으로, 그리고 이론적 체계를 갖추지 않는 개성 기술적인 지지들은 현실적으로 그 효용성이 떨어지며, 학술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한 경우가 무수히 많았다. 이상에서 언급한 지지연구의 기본 방향은 지지연구의 범위를 정하는데 기본적인 준칙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논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지지연구는 다음과 같은 대상 범위를 통해 구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첫째, 지난 일제 강점기 이래 지난 한 세기 동안 국가사회의 발전 및 변동과 교호적 인과관계를 맺어 온 국토공간의 격변을 총체적으로 그려내고, 체

계적으로 개관할 수 있는 전국지지(全國地誌)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일차적으로 우리 국토가 지닌 위치적, 자연 환경적 기본 조건들과 특성,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우리 민족이 근·현대사의 고난에도 불구하고 역동적인 삶을 전개하면서 조형해 온 국토공간의 배열 질서, 연계 구조, 기능 체계, 그 변화와 발전 과정 등을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총론격인 전국지지는 국토와 각 지역의 변화와 그로부터 파생되는 다양한 공간문제, 국가 차원의 갈등과 이의 지역에 미치는 영향과 작용, 그 동안 시행되어온 다양한 공간 및 지역정책과 그 파급효과, 그리고 그 미래의 발전 방향 등에 초점을 맞춘 실천적, 정책적 내용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국지지가 우리 국토라는 전체 시스템 — 하나의 총체적인 생활 및 문화권, 인문적 실체(human entity)로 설정할 수 있음 — 의 일반적인 구조와 변화 양상, 미래의 발전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설명하면서도, 그 구성 요소이자 단위인 각 지역(이를테면 각급 행정구역)의 독특한 변화상과 차별적인 면모를 주의 깊게 파악하고 그려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시대에 따라 변화해온 정치질서와 경제체제, 사회규범 하에서 건조환경(建造環境, gebaute Umwelt)인 국토공간을 바탕으로 하여 다채로운 활동을 전개해 나가는 국토의 진정한 주인이자 주체인 국민들의 생활양식과 인식체계, 그들의 삶의 터전에 대한 평가와 이해관계, 행동양식과 전략 등을 서술의 기본 관점으로 수용해야 할 것이며, 역사적, 구조-기능적, 그리고 영역적 접근방법 등을 적절히 원용하여 내용을 풀어 나가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전국지지에 담겨야 할 구체적인 내용체제 또는 항목은 좀더 깊은 연구와 논의를 거친 후 결정되어야 할 것이지만, 원론적으로는 국토의 기본 조건과 역사(국가발전 개관), 자연 및 생태환경(환경문제 포함), 인구, 정주공간(농촌과 도시), 산업 및 경제활동, 교통과 통신(SOC 포함), 주택 및 토지이용, 관광 및 여가활동, 사회문화 및 교육, 지역구조와 지역문제, 지역의식(정체성), 국토 및 지역정책, 국토의 미래 발전방향 등을 제시할 수 있다(〈표 1〉 참고).

둘째, 기존의 지지와 차별성을 부각시키고 국토 관련 전문 연구원이자 공간 및 지역과 결부된 부문 영역의 문제까지 포괄하는 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주제별(主題別) 지지』를 편찬하는 것도 대단히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특히 국토지리정보원이 향후 4, 5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하고 있는 『한국지리지』권역별 지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간되고 있는 방대한 분량의 도지나 광역시지 등과 사업상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더군다나 지금까지 전국지지에서 피상적으로 다루어진 다양한 주제들을 핵심적으로 선별하고, 이를 분야별 전문성을 가미하여 서술한다면, 그 결과는 국토연구원의 관련 정책개발에 기초 자료로서도 아주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훌륭한 지지 각론이 될 것이다.

주제별 지지는 기본적으로 전국지지에서 총론적이고 개괄적으로 다루어 진 주제들을 부분 영역별로 독립시켜 심도 있게 연구하는 방향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또한 주제별 지지는 전체 국토공간을 대상으로 하여 부문 영역적 주제를 시계열적 변화과정과 지역적 전개양상에 초점을 맞추되, 특정 지역의 차별적 발전을 부각시키면서도 이것이 전체 국토공간의 구조와 변화와 어떤 작용관계를 지니고 어떻게 자리 매김되고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주제의 부문영

역 자체의 내적 발전논리와 아울러 다른 주제와의 인과적 관련성을 다양한 시각과 관점에서 비교 설명하고, 이로부터 종합적인 성격을 도출할 수 있도록 접근해야 할 것이다.[7)]

셋째, 이상과 같은 전국 및 주제별 지지와 병행하여 가칭 『국토지도집』(A National Atlas of Korea)을 자매편으로 편찬하는 것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지지연구에 있어서는 다양한 형식과 내용을 담은 각종 주제도가 필수 불가결하다. 무엇보다도 지도는 지역적 지식과 국토 정보를 효과적으로 조직할 수 있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이를 손쉽게 이해시켜 주는 유용한 도구이기도 하다. 전국지지와 주제별 지지에는 수많은 지도가 새롭게 제작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효과적이고 적절하게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지지연구에 지도 제작에 대해 깊은 관심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투자와 지원이 지지연구의 구상단계에서 적극 감안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한 걸음 더 나아가 좀더 체계적인 접근을 시도한다는 의미에서 전국지지와 주제별 지지에서 축적된 연구 성과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전국 및 부문 주제에 따른 핵심적인 내용들을 다양한 형

〈표 1〉 주요 지지서의 목차 비교

국립지리원발간 한국지지 (1933~1988)		29차 세계지리학대회 조직위원회발간 한국지리 (2000)	국립지리원 발간 한국지리지 – 충청편 (2003)
〈총론편〉	5. 에너지자원과 지하자원	1. 개요	〈권역편〉
I. 위치와 영역	6. 공업과 공업지역	제1부	1. 지역의 과거와 현재
1. 위치	7. 교통과 통신	1. 자연과 인문환경	2. 자연환경
2. 영역	8. 산업과 상권	2. 지형	3. 인구
3. 한국의 주변	9. 대외무역	3. 기후, 식생, 토양	4. 정주체계
4. 세계 속의 한국	10. 관광산업	4. 한국인과 한국문화	5. 산업경제
5. 지역구분	V. 인구와 취락	5. 인구	6. 교통통신
II. 역사적 배경	1. 인구	6. 도시	7. 관광 및 여가활동
1. 민족의 원류와 문화	2. 가옥과 촌락	7. 농촌과 농업	8. 지역의식
2. 국토영역의 변천	3. 도시	8. 공업	9. 지역문제와 개발정책
3. 한국의 지지 편찬사	4. 도 · 촌의 지역 불균형	9. 교통, 통신, 관광	10. 지역의 미래
4. 한국지도의 발달사	VI. 국토개발	10. 국토개발	
III. 자연환경	1. 국토개발의 기본구상	11. 국제관계	
1. 한반도의 형성	2. 부문별 개발구상	제2부	
2. 지형	3. 국토자원의 개발과 보존	12. 서울의 경관	
3. 기후	4. 지역별 개발현황과 계획	13. 군사분계선지역	
4. 토양	5. 관광위락개발과 보전	14. 발전하는 대전	
5. 식생과 동물	〈도별〉	15. 변모하는 태백산지역	
6. 육수 및 해양	I. 지리적 기초	16. 남동임해공업지대	
7. 자연재해	II. 역사적 배경	17. 역사도시 경주와 안동	
IV. 경제와 산업	III. 자연환경과 자연재해	18. 곡창 김제-만경평야	
1. 경제의 성장과 구조	IV. 산업 활동과 지역개발	19. 제주도의 자연환경과 문화	
2. 농목업과 농목지역	V. 인구와 취락	20. 백두산과 개마고원	
3. 임업과 임업지역	VI. 교육과 문화	21. 북부지방의 핵심지역 평양과 남포	
4. 수산업과 수산자원	VII. 지역구조와 그 특색	22. 북한의 개방과 두만강 개발	

7) 토론과정에서 주제별 지지를 이를 테면 주택, 토지, 교통, 환경, SOC, 지역정책 일반 등 좀 더 세분화된 항목을 중심으로 서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태의 주제도 제작으로 연결시켜 지도집으로 묶어 발간하는 것도 구상해 볼 필요가 있다.[8] 여기서 말하는 지도집은 단순히 지도의 나열이 아닌, 이들 지도와 각종 주요한 도표, 이에 대한 설명 내지 해설을 붙이는 형식이 될 것이며, 이 자체로서 독자성과 아울러 지지연구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에 대한 좋은 모델로서는 독일 라이프치히 소재 지지연구소(Leibniz-Institut fuer Laenderkunde e.V.)에서 발간하고 있는 『독일연방공화국 지도집』(Nationalatlas Bundesrepublik Deutschland)이다.[9] 이는 주제별로 연차적으로 수백 쪽에 달하는 분량의 총서의 형태로 발간되고 있는데, 우리의 여건에서 이런 방식이 어렵다면 1회한의 단행본으로 발간하는 방식도 적극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3) 지지편찬에 있어 서술 방식

그 동안 지지 편찬과 발간에 대한 실험 내지 시행착오는 국내 · 외적으로 계속되어 왔다. 우선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여지나 읍지, 최근 들어 지방자치단체에서 폭발적인 양상으로 발간하고 있는 각종 도지나 시군지 및 향토지, 그리고 학술적 차원에서 교과서 형태로 한국지지가 국내외의 저자들에 의해 여러 차례 발간된 것이 있다. 그리고 이미 지적하였듯이 특히 1980년대에 당시 건설부 국립지리원에서 발간한 『한국지지』가 있다. 그런데 이들 지지에 대한 다양한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무엇보다도 고정 관념화된 정형적이고 구태의연한 항목구성, 부분적으로 시대에 맞지 않거나 뒤떨어진 내용체계, 각종 자료의 나열적이고 단조로운 서술체계, 무미건조한 설명방식 등이 주요 문제점이자 극복되어야 할 사항으로 지적되어 왔다.

따라서 지지연구의 내용구성과 체계, 서술방식에 있어 새로운 접근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존의 도식적인 내용체제와 서술방식으로부터 과감히 탈피하고 분명한 문제의식과 관점(시각)을 갖고, 국토와 각 지역의 변화와 발전 잠재력, 당면 과제와 정책, 발전방향 등을 핵심적으로 부각시키고, 이를 중심으로 하여 서술을 전개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론적 체계가 결여된 백과사전적으로 서술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특히 서술의 방식에 있어 논리적 전개에 역점을 두어야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현실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고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데 기본 자료로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응용적 · 정책적 측면에 대한 서술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이에 먼저 내용구성과 서술체계에 있어 구체적

---

8) 지지연구 과정에서 조사되고 수집된 각종 자료들을 주제도 제작에 직접 활용함으로써, 지지의 가치와 격조를 격상시키고 그 활용도를 높이는 데에도 큰 도움을 줄 것이다. 지도만이 갖는 내용적, 자료적 특성을 통해 지지를 보완하자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조선 후기의 김정호는 '대동여지도'와 이를 보완하는 『대동지지』편찬과 병행하여, 지도제작 과정에서 얻은 각종 정보를 지리지로 정리하고 이를 통해 완성된 지도를 해설해 주는 지침서로서 지리지를 저술하였다.

9) 자세한 내용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조할 것(www.ifl-leipzig.com/daten/deutsch/navigation/_atlas.html). 단 여기서 총서의 내용체제가 지도집의 항목과 아울러 지지의 내용을 설정하는데 도움을 줄 것 같아 간략히 소개하고 한다. 총서는 일부는 이미 간행되었고 나머지는 2004년말까지 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색인편까지 포함하여 총 13권으로 되어 있다. 제1권 사회와 국가(Gesellschaft und Staat), 제2권 지형 · 토양 · 수문(Relief, Boden und Wasser), 제3권 기후 · 동식물계(Klima, Pflanzen- und Tierwelt), 제4권 인구(Bevoelkerung), 제5권 농촌과 도시(Doerfer und Staedte), 제5권 교육과 문화(Bildung und Kultur), 제6권 노동과 생활여건(Arbeit und Lebensstandard), 제7권 기업과 시장(Unternehmen und Maerkte), 제8권 교통과 통신(Verkehr und Kommunikation), 제9권 여가와 관광(Freizeit und Tourismus), 제10권 세계 속의 독일(Deutschland in der Welt), 제11권 독일 개관(Deutschland im Ueberblick), 제13권 색인(Registerband).

인 원칙을 설정해 볼 수 있을 것인데 첫째, 국토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추구하는 것이다. 인간 활동의 기본 조건인 자연 환경적 여건과 그에 내포되어 있는 발전 잠재력을 바탕으로 하여 인간이 삶을 영위하면서 이루어 놓은 다양한 인문현상을 총체적 시각에서 설명할 수 있는 내용적 지표(또는 하위 주제)를 발굴하고, 시간적 변화와 공간적 전개를 연계하여 수직 · 수평적 접근이 가능한 주제를 고려하는 동시에 국토공간의 형태(patterns)와 과정(processes)을 입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의제를 선정하는 것이다. 둘째, 문제 지향적(problem-oriented) 이슈를 다각적으로 발굴하는 것이다. 가치중립적인 주제와 아울러 문화, 권력, 이데올로기, 사회적 과정이 매개된 가치 함축적인 이슈들도 포함시키고, 유동적인 국토 발전과정에서 초래될 수 있는 다양한 지역문제들도 적극 제시하는 것이다. 셋째, 이론적 고찰을 충분히 반영시키는 것이다. 기술(記述) 위주의 내용이 불가피한 논제보다는 지리 공간적 가정과 모델에 입각하여 접근할 수 있는 핵심적 과제들을 연구 소재로 적극 부각시켜 나가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전문성도 함께 제고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줄거리만을 완성할 수 있는 단편적인 주제보다는 치밀한 분석을 요하는 소재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넷째, 적절성과 시의성의 강화이다. 우선 신중한 논의와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국토공간과 결부된 의제를 적극 편성하는 것이다(안영진, 2004). 이런 맥락에서 국토정책에의 응용이라는 측면도 간과할 수 없다. 현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데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논제를 제시해 응용적 측면을 한층 강화하며, 정책수행의 결과 파생되는 문제에 대한 해결 전망을 밝혀줄 수 있는 내용과 소재로 다양하게 정합적으로 편성하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서술방법과 관련해서는 우선 전통적인 지지의 도식적 기술방식에서 탈피하고, 국토의 현황에 대한 상투적인 소개에 머물기보다 현대적 연구 성과와 접근방법을 적절히 조화시켜 전체 내용을 유기적으로 구성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각 장의 내용에 대해 집필자의 관점이 강조되겠지만, 지지의 전체적인 틀과 맥락을 항상 감안하여 기술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지지의 문제의식을 기본적으로 현실 생활의 상황조건에서 출발하여 제기하도록 하며, 이를 바탕으로 기존의 연구 성과를 폭넓게 소개하며, 그 응용적 측면이나 정책적 방향을 고려하여 기술하는 것이다. 따라서 주제의 내적 정합성과 외적, 사회적 적실성 내지 적합성을 차분하고 균형 있게 고려하고, 기존의 학술적 연구 성과를 기술과정에서 충분히 인지하고 적절히 인용하며, 전체적으로 내용을 간략하며 간결하게 기술하되, 새로운 도표나 지도, 사진을 많이 발굴하여 적절하게 활용함으로써 독자들에게 친근하고 현대적인 감각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4. 맺음말

이 글은 개항 내지 일제 강점기 이래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국가사회의 발전과정에서 우리 국토와 각 지역이 경험한 다양한 구조적, 기능적 변동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국토연구원이 기획하고 있는 국토지지 연구가 과연 어떤 방향과 목표, 그리고 내용체계를 가져야 할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지리학에서 많이 논의되어온 지지연구의 의미와 동향을 개괄적으로

검토한 뒤, 국토연구원의 위상과 성격에 부합하며 이미 나와 있는 지지서와 차별화할 수 있는 새로운 지지연구의 기본 방향과 연구범위, 서술체계 등을 고찰해 보았다.

지지연구는 수년에 걸쳐 단계별로 추진하고 많은 전문 인력을 동원하고 적잖은 재정이 투입될 사업이므로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게 사업을 진행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새로운 형식과 전향적인 내용체계를 지녀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더군다나 국토연구원의 구상하는 지지연구는 (준)정부차원의 국가지 연구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테면 개인 또는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지지(예컨대 郡誌, 市誌, 道誌)처럼 제한된 시각에서 특정한 문제의식이나 의도 하에서 저술하고, 편의적인 내용구성과 체계로 발간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국가 차원의 지지인 만큼 기본적으로 국가지의 편찬이라는 인식과 균형 잡힌 관점을 견지하고 시대의 이념이나 사회적 이해관계에서 가급적 벗어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지지연구는 기본적으로 자연환경에서부터 인구, 정주체계, 산업, 정치, 사회, 문화, 지역문제와 개발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분야에 걸친 학술적 연구성과와 공간정보를 토대로 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관련 학자들의 광범위한 참여와 학계와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이들로부터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한 연구인력(집필 및 편집)을 최대한 동원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렇지만 지지연구는 기존 지지의 한계를 성찰하고 비판적으로 지양하는 바탕 위에, 국토의 발전과정을 총체적으로 담아내는 동시에 개발정책을 공고히 뒷받침할 수 있는 전향적인 형식과 문제 지향적이고 동태적인 서술체계를 지녀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지지연구의 본질과 성격, 지지의 편찬 및 발간의 목적과 배경을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지는 여러 해 동안 연구자들이 열의와 정성을 갖고서 국토공간과 지역의 다채로운 면모와 변동 양상을 수백, 수천 조각의 이론과 사실의 편린들을 모으고 짜 맞추는 노력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통계적 자료의 나열에 그칠 뿐, 그걸 하나로 엮어주는 통찰이나 사회발전와의 관계에 대한 깊은 탐구로 넓혀 나가진 못할 때에는 생동감 있고 유의미한 지지가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마지막으로 본 지지연구는 기존 지지연구 작업의 경험과 노하우(know-how)를 수렴하고, 관련 학회의 관심을 제고하는 동시에 국토연구원 내의 사업추진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다양한 형식의 집담회나 세미나를 개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에 지지연구의 필요성과 현대적 효용성, 우리나라 지지연구의 역사적 경험과 실제, 외국의 지지연구 동향, 지지의 내용구성과 편찬체제 그리고 서술방식 등의 주제를 다루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권용우 · 안영진, 2001, 지리학사, 한울, 서울.

김기혁, 2000, "인문지리학의 방법론," 제29차 세계지리학대회 조직위원회(편), 한국의 지리학과 지리학자, 한울, 서울, 169-203.

김상빈, 2003, "동독지역의 지역지리 최근 연구동향 : 라이프찌히 지역지리연구소의 연구활동을 중심으로," 지리학연구 37(2), 91-105.

박영한, 1987, "국학으로서의 지리학: 현황과 방법의 모색," 지리학 35, 1-9.

서태열, 1989, "지역지리학 쟁점의 재조명: 1950-1989,"

지리교육논집 22, 80-91.

손명철, 2002, "지역연구," 대한민국 학술원(편), 한국의 학술연구 - 인문지리학, 서울, 339-380.

안영진, 2002, "우리나라 지역지리학의 연구 추세와 전망," 한국지역지리학회지 8(2), 184-198.

안영진, 2003, 국토지리정보원 한국지리지 편찬 연구용역 - 충청편 제안서 (미발표 문건), 서울.

안영진(옮김), 2003, 사회공간론 - 사회지리학 이론 발달사, 한울, 서울 (Werlen, B., 2000, *Sozialgeographie - Eine Einfuehrung*, Bern, Haupt).

안영진 · 김상빈, 2004, "근대 독일 지역지리학의 성립과 발달과정,"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0(3), 554-567.

양보경, 2000, "전통시대의 지리학," 제29차 세계지리학대회 조직위원회(편), 한국의 지리학과 지리학자, 한울, 서울, 15-96.

유우익, 1986, "현대지리학의 이론과 실제 - 지역지리학의 르네상스를 위한 소고," 현대사회 6(4), 246-263.

최병두, 2002, "새로운 지역지리학과 세계화시대 지역발전," 한국지역지리학회지 8(2), 131-149.

森川 洋, 1997, "ドイツにおけろ地誌學の研究動向," 廣島大學 地誌研年報 6, 15-50.

森川 洋, 1998, 英語圏諸國におけろ人文地理學の研究動向 - 地誌學ち中心として (綜合地誌研 研究叢書 32), 廣島大學綜合地誌研究資料センター.

Blotevogel, H. H., 1997, "Aufgaben und Probleme der Regional Geographie Heute: Ueberlegungen zur Theorie der Landes- und Laenderkunde anlaesslich des Gruendungskonzepts des Instituts fuer Laenderkunde Leipzig," *Berichte zur deutschen Landeskunde* 70(1), 11-40.

Borsdorf, A., 1999, *Geographisch Denken und Wissenschaftlich Arbeiten*, Gotha, Klett-Perthes.

Claval, P., 1998, *An Introduction to Regional Geography*, Oxford, Blackwell.

Gilbert, A., 1988, "The New Regional Geography in English and French-speaking Countries," *Progress in Human Geography* 12(4), 208-228.

Hauer, J. and Hoekveld, G., 1993, "Introduction: Why regional human geography," in Hauer, J. et al.(eds.), *Moving Regions* (Nederlandse Geografische Studies 161), 13-24.

Hoekveld, G. et al., 1994, "Introduction: Patterns in regional geography," in Terlou, W, C.(ed.), *Methodological Exercises in Regional Geography: France as a Example* (Nederlandse Geografische Studies 179), 3-10.

Holmen, H., 1995, "Whats New and Whats Regional in the New Regional Geography," *Geografiska Annaler* 77B, 47-63.

Johnston, R. J. et al.(eds.), 1990, *Regional Geography - Current Development and Future Prospects*, London, Routledge.

Pohl, J., 1996, "Ansaetze zu einer Hermeneutischen Begruendung der Regionalen Geographie: Landes- und Laenderkunde als Erforschung regionaler Lebenspraxis?" *Berichte zur deutschen Landeskunde* 70(1), 73-92.

Pudup, M. B., 1988, "Arguments within Regional Geography," *Progress in Human Geography* 12(3), 367-390.

Stewig, R., 1979, *Probleme der Laenderkunde*, Darmstadt, Wissenschaftliche Buchgesellschaft.

Werlen, B., 1997, *Sozialgeographie alltaeglicher Regionalisierungen - Globalisierung, Region und Regionalisierung*, Stuttgart, Franz Steiner Verlag.

Wolf, K., 1994, "Der gesellschaftliche Auftrag der geographischen Landeskunde," *Berichte zur deutschen Landeskunde* 68(2), 361-367.

Wood, G., 1996, "Regionale Geographie im Umbruch? Ansaetze einer sozialwissenschaftlichen New Regional Geography im angelsaechsischen Sprachraum," *Berichte zur deutschen Landeskunde* 70(1), 55-72.